

기아 K4 해치백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6



품질로 뛰어넘는다...현대차·기아, 美관세 '정면돌파'

상반기 미국 시장점유율 11%...수익성 악화에도 가격 인상은 늦춰 팰리세이드·아이오닉6·K4 해치백 신차 3종 출시 하반기 반등 노력

현대차그룹이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신차 3종을 잇달아 투입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 공세를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대차는 정면 돌파를 택한 모양새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수익성 악화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미국 시장 강화를 우선시 해왔으며,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신차로 반등의 기회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 등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6월 미국에서 89만 4000대를 판매해 상반기 시장점유율 11.0%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점유율(10.5%)보다 0.5%p 오른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47만 7000대, 기아 41만 7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는 지난 4월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차량 판매가를 유지하며 점유율 확대에

집중했다.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적인 브랜드와 고객 충성도 확보를 우선시했다. 이런 전략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하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인 신차 3종을 통해 방어 전략을 다지고 미국의 관세 공격을 막아낼 예정이다. 하반기 미국 시장에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팰리세이드'와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6'가 출시될 예정이고, 기아에서는 K4 해치백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상반기 현대차가 출시한 신차가 아이오닉 9 1종에 그쳤던 데 반해 하반기에는 3종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차 3종 모두 기존 모델부터 현지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점에서 '신차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팰리세이드는 2019년 이래 미국에서 50만대가 넘는 판매 신화를 썼고, 아이오닉6는 제작년부터

누적 3만 1000여대를 기록했다. K3의 완전 변경 모델 격인 K4는 2009년부터 152만 8000대가 팔린 스테디셀러다.

출시 예정인 신차에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라인업도 포함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HEV 모델이 추가되며 친환경 경차 수요 대응에 나선다. 실제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HEV 판매량은 13만 6000대로 전년 대비 45.3% 급증했다. 신형 팰리세이드 HEV는 글로벌 친환경차 흐름에 적합한 차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소비자 할인 혜택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이달 초까지 예정된 할인 정책을 오는 9월 2일까지 연장해 소비 심리 위축을 막고 관세 악재에 대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추면서도 탄탄한 신차와 친환경차 라인업으로 관세 여파를 방어하는 현대차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하반기 실적 반등에도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디올 뉴 팰리세이드.

<현대차·기아 제공>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 '현실 대안' 급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발간 보고서...전기차 캐즘에 하이브리드 인기 증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차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하이브리드 기술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기대했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 막히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하이브리드의 확산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모빌리티 인사이트 2025년 6월호'에 따르면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부족과 높은 가격, 보조금 축소 등으로 성장률이 부진한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와 하이브리드차(HEV)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요국과 완성차 업체들은 하이브리드를 단순한 '브릿지 기술'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대안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3국의 하이브리드 기술-정책 전략을 비교하며 각각 시장이 처한 환경과 기술 발전 방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변속기 기술을 활용한 병렬형 시스템(TMED)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대형 SUV와 고성능 차종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중이다.

이 같은 하이브리드의 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기술을 지속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방위 산업 분야로의 확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저소음·저발열 운행이 가능하고 작전 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군용 차량 등 고위험 작전 환경에서 유리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정부 과제를 통해 2029년까지 전차용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하이브리드 전동화 시스템 개발과 방위 산업으로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해나 기자 khn@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차 안전 검사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본격 실증...전방 충돌 경고·거리유지 등 ADAS 5개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 주요 자율주행 기능 5종의 안전성을 기능을 검사하는 자율차검사시스템(KADAS)을 올해 안에 세종검사소에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간 거리 인식·제어 등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연평균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으로는 센서 오작동 등 인지 단계 일부만 진단이 가능해 판단·제어 단계의 안전을 평가하는 검사 체계는 미흡한 상

황이다.

TS는 자율차검사시스템 테스트베치를 올해 내로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검사 기준과 방법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전방 거리 유지, 측방 거리 안전, 측방 거리 유지, 전방 충돌 경고, 긴급 자동 제동 등 ADAS 5개 기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

공단은 자율주행 기능 검사를 통해 도로 주행 안전성과 적합성 검증은 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제작사·센서 개발사의 기술 발전과 자동차 검사 제도 혁신 등을 이뤄 자율차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